



국제협력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건설분과 이사회(연차회의)
국외출장 결과 보고**

2014. 4. 22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I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예방문화 분과 의장기관으로서 ISSA 건설분과 이사회로부터 접수된 토의 의제에 따라 공단에서 운영하는 "Find Accident" App.에 대한 발표와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산업보건대회(ICOH 2015) 심포지엄 개최 등에 대한 일정협의 등

2. 출장자 : 협력지원실 국제협력팀 김동찬 차장

3. 출장지 및 방문기관: 벨기에(Antwerp), FvB Regional Office

4. 참석자

Gerard Ropert(CRAMIF, 회장), Karl-Heniz Noetel(BG BAU,부회장), Kunt Ringen(CPWR, 부회장), Carl Heyrman(navb.cnac Constructiv, 부회장), Jan Warning(ARBOUW, 부회장), Jean-Claude POIREIR(CRAMIF,부회장), Bruno BISSON(CRAMIF, 부사장) <ISSA 건설분과 주임원들>

5. 주요 회의 참석 일정 : 2014.04.09(수)~04.13(일) [3박 5일]

일 정	내 용	비고
○ '14.04.09(수)	○ 출국 - 비행기(KE5901) 인천(09:30) ⇒ 프랑스(14:25) - 기차 프랑스(17:22) ⇒ 벨기에(19:27)	파리 경유
○ '14.04.10(목)	○ 2014년 4.29~4.30 코펜하겐국제회의 토의 ○ 2015년 심포지엄 중 ICOH 2015 협의 ○ "Find Accident" App. 발표 ○ "뉴스레터" 제작에 대한 소개	
○ '14.04.11(금)	○ 2014년 2월 다카, BD 심포지엄 후속조치 ○ '14년 독일 산업안전보건대회 심포지엄 구성 및 참여방안 토론 ○ '13년 활동현황 및 '14년 예산발표	
○ '14.04.12(토) ~04.13(일)	○ 귀국 - 기차 벨기에(14:33) ⇒ 프랑스(16:40) - 비행기(KE902) 프랑스(21:00) ⇒ 인천(14:50)(13일)	파리 경유

II. 주요 수행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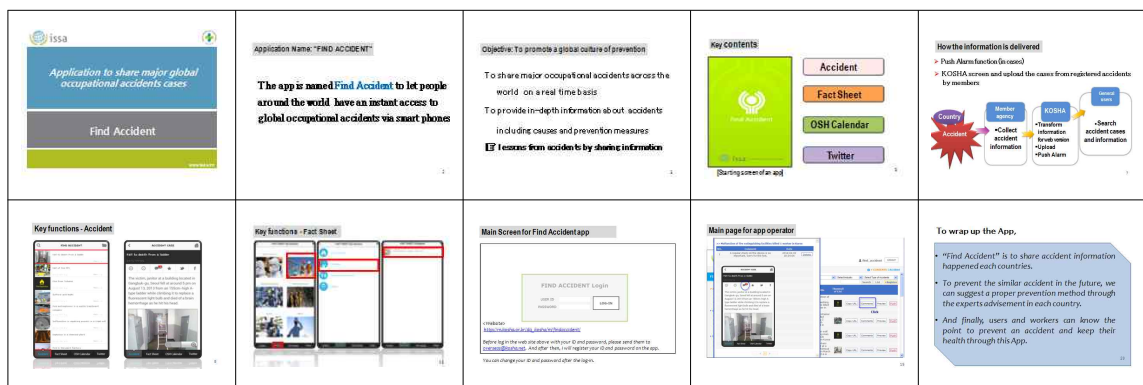
1. "Find Accident" 모바일 App. 개발개요 및 운영현황 발표

1) Find Accident 모바일 앱 발표(김동찬, KOSHA)

○ 주요 발표내용

- Find Accident는 2013년 ISSA 예방문화분과와 공단(KOSHA)에서 공동으로 개발된 Mobile App으로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사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재해예방방법을 등재하여 근로자가 작업현장 등 언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도록 예방문화 확산을 주목적으로 개발된 모바일 앱임
- 사고가 발생했을 때부터 그 정보가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설명함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정보등재는 ISSA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주요 산업안전보건관련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므로 ISSA건설분과에 가입되어 있는 주요기관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Find Accident 모바일 앱의 전파를 유도해 줄 것을 부탁함

○ 주요 발표자료



2) Find Accident 모바일 앱 발표결과 주요토의 사항 및 결론

○ 결론(Gerard Ropert / CRAMIF 및 ISSA-CC 회장, 프랑스)

ISSA 건설분과에서 예방문화확산 측면에서 "Find Accident" 앱을 회원에게 소개는 할 수 있으나 전파는 어려울 것임. "Find Accident" 앱에 명시된 Prevention Method가 근로자에게 정확한 Solution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며 예방문화분과에서 홍보 및 전파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주요 질문 및 답변

- Jan Warning(ARBOUW Foundation, 네덜란드)

건설분야 Accident type에서 왜 Machinery부분이 없습니까?

- 김동찬(KOSHA)

Find Accident개발 당시에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10인 이상의 사상자가 나올 정도의 대형사고(Major Accident)에 Focus를 맞추었기 때문에 Machinery부분은 구분하지 않았음.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례 등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현재 매우 낮습니다. ISSA 건설분과 회원으로 등재한 기관에 동 Mobile App을 소개하여 가입을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Jan Warning(ARBOUW Foundation, 네덜란드)

현재 Find Accident에 등재된 사고사례는 몇건이나 됩니까?

- 김동찬(KOSHA)

현재 등재된 사고사례는 수십건 정도 밖에 되지 않음. 이는 작년에 개발되어 작년 가을부터 발생한 사고 사례가 등재되었기 때문이며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국문에서 영문으로 번역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 등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사고포착”이란 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Jan Warning(ARBOUW Foundation, 네덜란드)

우리도 우리 자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음. 우리는 자국어로 개발된 별도의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25천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35개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ISSA 건설분과 검증을 거쳐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Find Accident에서 제공하는 Prevention Method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정확한 Solution을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함.

- Carl Heyrman(Navb-Cnac Constructiv, 벨기에)

Find Accident에서 제공하는 Prevention Method가 근로자에게 Solution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벨기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작업 전 Tool Box meeting과 같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 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예방문화확산에는 좋은 Application이라고 생각함.

- Jean-Claude Poirier(CRAMIF, 프랑스)

Find Accident는 ISSA 예방문화분과에서 개발한 App임 운영방법은 그들에게 맡기고 회원기관이 Find Accident 앱에 가입하려면 그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 김동찬(KOSHA)

앞서 나눠드린 Find Accident upload매뉴얼을 참조하시면 잘 나와 있음.

2. “Find Accident” 사고사례 중 「고소작업 추락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1) Find Accident 모바일 앱기반의 사례분석 발표(김동찬, KOSHA)

○ 주요 발표내용

- 사고내용

6.0m높이의 판넬을 2.2m 높이의 이동식 작업대를 사용하여 1.55m의 청소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

- 재해발생원인

- 부적절한 작업대의 사용 및 청소도구의 부적절성(구조적 문제)
- 위험성평가, 허가절차, 안전교육, 현장순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 표지판 미부착, 보호구 미착용(관리적 문제)

- 재해예방방법

- 총괄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작업전 Human Error를 포함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요인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순찰시스템과 위험작업시 허가절차 등을 설치하고 작업현장에 안전표지판을 부착, 보호구 착용은 안전벨트, 안전화뿐만아니라 Cleaning에 사용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유해성을 평가하여 보안경, 유기화합물 보호복 또는 방독마스크 착용도 고려해야함

- 기타 : 순찰시스템의 중요성과 이동식 작업대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

2) Find Accident 모바일 앱기반의 사례분석 발표에 토론

- Kunt Ringen(CPWR, 미국)

Risk Assessment를 언급만 하였지 Risk Assessment의 결과에 따른 위험 요인은 언급되지 않았음

- Karl-Heinz Noetel(DGUV, 독일)

Risk Assessment는 누가 해야되며 누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지 명시를 해야 할 것임. 독일인 경우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음.

- Bruno Bisson(CRAMIF, 프랑스)

잘못된 청소도구를 주어 근로자로 하여금 불안정한 행동을 유발시켰다면 누가 그 청소 도구를 주었는지, 청소도구를 준 사람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음

- 김동찬(KOSHA, 한국)

모바일 앱 운영 상 재해예방대책은 단순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며 완벽한 Solution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고 근로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작업전에 다시 한번 되새길(remind)필요가 있도록 하여 예방문화를 확립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Jean-Claude Poirier(CRAMIF, 프랑스)

예방문화 확산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발생원인 및 이에 대한 재해예방 분석 및 추론은 훌륭함.

3. 세계산업보건대회기간 중 ISSA 건설분과 심포지엄 협의

○ 세계산업보건대회 (ICOH 2015) 참여 및 운영일정 등 협의 내용

- 개최시기는 ICOH 개최기간인 5.31~6.05사이에 시행
- 심포지엄 개최기간은 0.5일(Half day) 실시
- 심포지엄 개최 시 참석자는 주로 개발도상국 또는 아시아 국가이면 좋겠음
- 한국 KOSHA에서 동 심포지엄기간 동안 “건설분야의 이민근로자 사고사례 및 재해예방 제도”란 제목하에 발표를 해주길 바람

○ ICOH 2015 대회 중 “심포지엄”의 title, 몇 명의 Vice President가 참여할 지 등의 내용은 "Questionnaire"를 송부해 주면 회신하여 주겠음

※ 덧붙임 1. Questionnaire를 4.15(화) 발송함

4. 방글라데시 심포지엄 결과검토 및 후속조치

○ 2.24-27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 대한 요약 보고

- 개 요

· 조직위

DCHT(Dhaka Community Hospital Trust)

Harvard University

Ramazzini College

· 참여 기관

의류 및 의복산업의 산업안전보건단체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기관(ISSA 건설분과, Kunt Ringen(CPWR, 미국)
/ Karl-Heinz Noetel(DGUV, 독일), ISSA 예방문화분과 In Seop Lee)

※ ILO는 참여하지 않음

· 말레이시아, 한국, 독일, 호주, 남아프리카, 스웨덴, 네덜란드, 미국 전문가등 170여명 참여

-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질병에 대한 유효한 데이터의 부족

· 공식적인 데이터의 신뢰성 부족 - 90%를 믿을 수 없음

- 건설안전분야의 위험요소는 유럽과 비교해 200배 높음
 - 산업안전보건전문가의 부족
 -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없음
 - 2월 심포지엄결과 기대되는 성과
 - DCHT에 산업 및 환경안전보건 연구 센터 설립 추진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마련
 - DCHT와 국제 OSH Center간의 과학적 의견 교환제공
 - 재해예방을 위하여 그림을 사용한 훈련
 -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공평한 보상금지급방법에 대한 토론
 - 2014.11월 중 Dehaka에서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 신규 센터의 설립(역할)
 - 모든 당사자의 이사회와 함께 비영리기관으로 설립
 - 중재 기능에 관하여 금전적으로 자립이 충분할 것
 - 데이터 분석 및 전문지식 개발에 대한 금전적 기술적 지원 제공
 - BD에 있는 다음의 공공보건기관에 대한 지원
 - ICDDRB(International Center for Diarrhoeal Disease Research)
 - CIPRB(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Research)
 - 신규 센터의 구성임원
 - DCHT는 Quazi Quamruzzaman의 지도하에 Center의 조직구성에 동의
 - Mahbub Jamil이 임시회장을 맡음
 - Mahmuder Rahman이 임시 전무를 맡음
 - 설립자는 BD내의 다른 기관과 중복된 임무를 가져서는 안됨
 - 이사회는 주요 산업분야에서 선출된 12인 이상으로 하되 적정한 정부 기관과 ILO 및 WHO의 직권에 따른다.
 - ISSA 및 센터의 역할구분
 - 센터설립 : ISSA
 - 산업안전보건 기본지침서 : 센터
 - 과학적인 지식 교환 : 센터
 - 실행가능한 프로젝트 : 예방을 위한 ISSA의 그림제공
 - 보상시스템 구축 : ISSA
 - 후속조치 회의 : DCHT, 센터, ISSA
- ※ 여기서 ISSA는 ISSA 건설분과, ISSA 예방문화분과 및 ILO를 의미

○ 10월 중재사항에 대한 제안

- 10월 심포지엄 개최목적

- DCHT의 새로운 센터 설립 공포
- 기초적인 산업안전보건지침서 제공
- 산업안전보건 및 건설안전분야 중재를 위한 토론
- 주요 국내당사자와 국제 공동체가 함께 센터에 대한 강력한 지지 선언
- 파트너
 - DCHT와 Havard University / Ramazzini 대학교 / ILO 및 ISSA
- 심포지엄 구성(심포지엄은 보건분야 및 건설분야로 운영)
 - 기술적분야 : 서울선언, 브르셀선언, 보스턴 선언, 우수사례, OSH 및 COSH 조직의 효율적 모델, OSH 비용 및 이익 서류제공, 보상모델
 - 좀더 복잡한 협동분야 : 좀 더 효율적인 회의장소 물색, 회의 개최를 위한 자금 확보, ISSA 특별위원회의 참여 유도, ILO의 참여 및 세계은행, WHO의 참여 유도 등
- 자금확보의 과제 : 총 30,000유로 소요 예산 확보
- 결론
 - BD의 작업조건 향상을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사항임
 - DCHT Center의 설립은 ISSA가 추진하는 모델과 일치함
 - DCHT는 가치있는 파트너임
 - 작업조건의 빠른 향상을 하기 위하여 설립이 필요함

BD에서 10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으나 ISSA 건설분과에서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없음. 그러므로 자금지원과 함께 ISSA의 다른 분과, ISSA 재해예방 특별위원회 및 ILO의 지지가 절실함

○ 주요 토론사항

- Jean-Claude Poirier(CRAMIF, 프랑스)

BD에서 구축되어야 할 보상시스템(Compensation System)의 모델은 어느 나라가 적합하겠는가?
- Karl-Heinz Noetel(DGUV, 독일)

독일의 Compensation System Model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며 본 사업은 제가 담당하여 추진할 것임
- 김동찬(KOSHA, 한국)

잠시 질문이 있음. 금년 2월 BD 다카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공단 국제협력 이인섭팀장이 BD의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Poster 및 Sticker를 제공하는 것을 실행하고자 BD 고용노동부로 여러 채널을 통하여 접촉하고자 하였으나 전화도 받지 않으며 이메일도 보내 보았으나 답변이 없음. 혹시 ISSA 건설분과에서 접촉할 만한 공무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받을 수 없겠습니까?
- Kunt Ringen(CPWR, 미국)

- ISSA에서도 여러번 접촉을 시도했으나 답변이 없음. ILO 본부 또는 인도 뉴델리에 있는 ILO지사만이 접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김동찬(KOSHA, 한국)
방글라데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증진시키고자 사용할 포스터 및 스티커의 제작 및 송부에 대한 사업은 올해는 일단 중단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음.
 - Kunt Ringen(CPWR, 미국)
10월에 개최예정인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자금지원문제로 ILO 본사와 접촉중인데 그 곳에서 지금까지 전혀 답변이 없음.
 - Karl-Heinz Noetel(DGUV, 독일), Kunt Ringen(CPWR, 미국)
ISSA 건설분과 뿐만아니라 전기분과등 각 재해예방분과의 목소리를 일치시켜 ISSA 특별위원회에 공동의견을 상정하고 ISSA 특별위원회는 ILO에 동 사항의 심각성을 주지시켜 ILO의 자금을 지원받거나 또는 ILO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또는 WHO로부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함.
 - Gerard Ropert (CRAMIF 및 ISSA-CC 회장, 프랑스)
방글라데시에서 10월에 개최할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한 목소리로 지지선언이 나올 수 있도록 ISSA 예방문화분과의 Mr.Bae에게 내용을 전달해 주기 바람
 - 김동찬(KOSHA, 한국) : 알았음

III. 기타 주요 회의 내용

1. 2013.10월 로테르담에서 개최된 건설분과 이사회 주요결정 사항

- Ms Jutta VESTRING을 대신하여 Mr. Karl Noetel(BG BAU)를 부회장으로 선임
- Mr. Carl Heyrman을 새 회계사로 임명
- 2013.4.26일자로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은 만장일치로 통과
- 방글라데시에 대한 건설분과의 지원 : 자금지원방법에 대한 협의
 - Jean-Claude POIRIER가 ILO의 Seiji Machida에게 전화하고 공식적인 우편을 보냈으나 ILO측에서 2014.1월까지 선거(pre-election)로 자금지원에 대한 조직구성의 어려움을 통보함
 - 방글라데시의 심포지엄을 연기하여 2014년 10.13에서 10.17까지 실시
 - 인도 및 방글라데시에 있는 ILO는 Jean-Claude POIRIER가 접촉예정 하지만 Ramazini College 및 Hospital in Dhaka와 합동으로 2013년 1월에 개최예정인 심포지엄은 Kunt Ringen이 설명함
 - 일본 건설안전에서 조사한 Fire Safety 구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섬유공장은 다시 건설되어야하며 다시 건설되는 동안 재해예방에 대하여 ISSA 건

설분과가 참여해야 함

- Jean-Claude POIRIER는 동 심포지엄의 파트너로 KOSHA를 명시하였고 ILO는 방글라데시 정부 및 노조대표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GIZ와 ISSA 섬유분과가 이 심포지엄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함. 전기분과 뿐만 아니라 대사관의 접촉도 유용할 것이라 첨언
- “고소작업으로부터의 추락”이란 웹기반 프로그램의 개발하기로 함
Karl-Heinz Noetel이 프로그램 개발을 책임지며 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많은 서류는 CPWR의 Kunt Ringen이 수행하기로 함
- “그림을 이용한 재해예방”<Prevention through Pictures>
Carl Heyrman이 제안한 것으로 영어버전과 다른국가언어로 된 버전으로 출시하며 Bruno BISSON이 ISBN number를 제공하고 첫 페이지의 메시지는 <Safety is a human right>로 함.
- 2013년 5월 15일과 16일 KOSHA가 CRAMIF에 방문하였으며 2013.9.30일 KOSHA와 ISSA 건설분과간 협정서를 체결하였음.
 - KOSHA와 CRAMIF간 협정서가 제출되었고 2013.11월 KOSHA에서 CRAMIF를 방문함. Karl-Heinz는 터기와 인도에서 재해예방기관간의 협정서의 서명내용을 설명함
- Jean-Claude POIRIER 및 Gerard Ropert가 헬싱키에서 개최하였던 예방문화분과의 국제심포지엄 및 제네바 Munrich에서 재해예방 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한 검토 토의
- Jean-Claude POIRIER 및 Gerard Ropert가 Doha, Qatar에서 세계사회보장포럼에서 산업사고예방 및 작업장으로의 복귀에 대하여 발표, ILO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건설분야에서 이주근로자에 대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향상시켜야 함을 강조
- 2014.8.24-27 Frankfort에서 개최예정인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 심포지엄 제목 : Vision Zero
 - 멀티미디어 페스티벌에 참여 : CRAMIF에서 장애근로자관련 3개 필름 출품
 - 심포지엄은 2시간동안 실시하고 German이 조직위가 되어 2013.11.30일까지 초록제출
 - 2014.2.4 드레드슨에서 조직위에 대한 워크숍이 개최(Bruno BISSON과 Carl Heyrman이 참석)
 - life cycle과 보스턴 및 브르셀선언이 심포지엄에 포함되어야 함
 - 총회는 심포지엄이후 Frankfurt에서 개최
- 2015 심포지엄에 대한 준비
 - KOSHA의 지원으로 개최되는 ICOH 2015과 함께 병행 event를 개최. 1일 또는 1.5일 심포지엄을 구성하여 진행

○ 향후 일정

- 2014.12월 전기분과 심포지엄이 칠레에서 개최됨.
다음 회의는 BG BAU에서 개최예정

2. 코펜하겐 국제회의 “건설 안전”(Zero Accident) 주제협의

○ Bruno BISSON(CRAMIF, 프랑스)이 발표

- 발표 주요내용은 “런던올림픽”의 사례를 예로 들어 국제적인 벤치마킹의 우수사례를 설명하고 건설분야에서 안전의 영향 및 보스턴 선언을 발표

- Kunt Ringen(CPWR, 미국) 및 Karl-Heinz Noetel(DGUV, 독일)

브라질에서 준비중인 월드컵 축구장 건설과정에서 현재 수천명의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금번 소련에서 개최한 소치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과정에서도 수백명이 다치는 등 심각한 재해상황을 고려할 때 런던 올림픽 경기장의 건설사례(Zero Accident)는 국제적인 벤치마킹과 더불어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건설재해예방에 좋은 지표를 마련할 것임.

3. 웹기반 “고소작업에서 추락” 프로젝트 : VIADESK

○ 개발목적

고소작업에서의 추락사고는 아직도 세계에서 심각하고 치명적인 재해원인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 및 실행과 우수사례공유를 통한 건설분과 역할을 다하고자 프로그램을 개발기로 결정함(DGUV에서 수행)

○ 프로그램 개발 개요

- 본 프로그램개발에 있어서 먼저 조사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고소높이의 정의 및 고소작업형태
 -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문제들
(예 : 불안정한 시스템 또는 사다리의 사용, 공동보호물의 결핍 등)
- 적절한 해결책 및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함
 - 새로운 접근 또는 접목을 제안하여 추락위험요소를 제거
 - 예방차원 제공 (예 : 운전 또는 유지보수 절차를 설계하여 제공)
 - 상이한 조건(예 : 이동용 높이조절 작업대 등)에 적합한 보호물 제공에 따라 고소높이로부터 추락의 위험을 감소
- 개인보호와 집단보호를 이행하는데 있어 발견된 어려움을 서술
 - 환경적인 어려움
 - 사용재료의 어려움; 적절한 재료의 결핍, 적합하지 않거나 실험재료

또는 이행하기에 너무 복잡한 자료

- 위험분석을 하기 위하여 리더십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인간공학 또는 심리적 문제(예 : 생산압력, 다양한 생산현장, 넓은 지리학적 영역, 근로자 수, 안전지침 준수(습관, 관습, 압력 등)에 따른 직원압력
- 고소작업에서의 DB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1. 국가명
 2. 고소작업의 정의
 3. 규정
 4. 건설분야 산업재해자 수
(회사 수,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사망자 수, 근로자 1000명당 재해율)
 5. 사고발생관련 작업형태
 6. 사고요인 분석
 - 1) 작업대 2) 근로자의 안전행동 및 태도 3) 건설 구조 및 설비 4) 계약자 또는 관리자급 직원의 안전관리형태 5) 근로자의 나이 6) 보호구 및 착용 상태 7) 근로자의 경험 8) 근로자의 건강 및 육체적 특성 9) 직업 10) 건설환경 11) 날씨 12) 근로자의 훈련 및 교육 13) 건설회사 규모 14) 근로자의 도덕성 15) 근로시간 및 근로일자 16) 건설산업표준 17) 건설위치 및 영역 18) 건설장소 높이 19) 건설자재 20) 경제상태 21) 고객
 7. 고소작업에서의 위험성평가
 8. 해결방법 및 재해예방 선택
 - 1) 작업대 2) 사다리 3) 비계 4) 안전대 5) 안전망 6) 안전교육 7) 안전 점검 8) 추락방지장치 및 보호구 9) 건설회사의 안전문화
 9. 작업현장의 인간공학
 10. 집단적 또는 개인적인 보호를 이행하는데 발견된 어려움

4. 2014.2월호 ISSA 건설분과 뉴스레터 발행 보고

○ Bruno BISSON(CRAMIF, 프랑스)가 편집 및 발행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음

- 신규 부회장 선임 : BG BAU의 Karl-Heinz Noetel
- 방글라데시에서 건설분과의 중재
- 그림을 통한 재해예방
- 예방문화분과의 국제심포지엄 : 핀란드 헬싱키에서 2013.9.25-27일 개최한 미래에의 접근
- 보스턴 선언의 이행 및 후속조치

○ 주요 토론

- 김동찬(KOSHA, 한국)
뉴스레터 표지의 사진이 건설현장인 것은 좋으나 현장 사이트의 이름과 지역이 표시되었으면 좋겠으며 이러한 사진을 택한 이유가 있는가?
- Bruno BISSON(CRAMIF, 프랑스)
특별한 사유는 없음, 뉴스레터 형태는 다른 기관 또는 우리기관의 형태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김동찬(KOSHA, 한국)
대부분 수많은 안전보건유관기관에서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데 가독

성을 높이려면 뉴스레터의 첫 번째 사진이 중요하다 생각되며 이 사진은 ISSA 건설분과의 역할이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됨.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회원기관 또는 싱가포르, 한국등으로부터 건설사진을 받아 ISSA 건설분과 고유의 저작권표시나 건설현장명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겠음

- Bruno BISSON(CRAMIF, 프랑스)
좋은 생각이라 생각됨. 참조하겠음

5. 2013년 주요 활동보고

- 제30회 산업안전보건 국제전략회의 : 2013.2.6-8, 독일 드레드센
 - 조직위 : DGUV, ILO, ISSA, EU-OSHA, IALI, ICOH, IOHA
 - 주제 : 예방문화 촉진을 위한 네트워킹
 - 회장 Gerard Ropert가 지원함
- 예방문화 국제심포지엄 : 2013.9.25-27, 핀란드 헬싱키
 - 조직위 : FIOH, DGUV, KOSHA
 - 주제 : 미래를 향한 접근
 - 회장 Gerard Ropert, 및 부회장 Bruno Bisson 참여
- 세계사회보장포럼 : 2013.11.10-15, 카타르 도하
 - 조직위 : ISSA, 카타르 은퇴 및 사회보장보험
 - 주제 : 장애 예방 및 작업장으로의 복귀
 - 회장 Gerard Ropert 발표 및 부회장 Jean-Claude Poirier 참여
- ISSA 건설분과 이사회
 - 2013.4.26 리스본
 - 2013.10.31-11.1 로텔르담
- 기술위원회를 위한 제7차 ISSA포럼 : 2013.6.25-26, 스위스 제네바
 - Jean-Claude Poirier 참여
- 신 브로셔의 정교화 및 ISSA 사무총장과의 회의
 - 2013.1.10, 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CNAMTS) 파리
- KOSHA와 CRAMIF와 상호협정 체결 : 2013.09.30 등

6. CRAMIF의 보스턴 선언에 대한 이행

2012년 10월 보스턴에서 개최된 제30차 ISSA건설분과 심포지엄에서 보스턴 선언 및 “건설산업에서 가치를 넘어서는 진행(Going Beyond Gol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명명하에 지속적인 근무 및 개발에 대한 새로운 표준서를 채택함.

선언에 대한 서명은 이 새로운 표준 및 성명서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선언에 따라 ISSA건설분과는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Projects와 Projects를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7. 2014.8.27 독일 Frank Furt에서 개최되는 세계안전보건대회 심포지엄 협의

○ 동 심포지엄은 4개의 Workshop으로 구성됨

- 워크숍 A : 설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재해예방대책(Carl Heyrman)
- 워크숍 B : 지속가능한 작업을 위한 건설안전 및 보건(Bruno Bisson)
- 워크숍 C : 안전 및 보건분야가 수반된 근로자의 훈련강화(Jan Warning)
- 워크숍 D : 더 건강한 작업현장조성을 위한 전략개발(Knut Ringern)

○ 전체회의(Plenary Session)는 1 및 2로 나누어서 실행

○ 발표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총 회의진행시간은 2시간으로 함

※ 공단에서는 유명순팀장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워크숍 B에서 10분간 발표